

국민의당 핵분열에... 지역 정치인 “어느당 갈까” 고민

광주시의원 8명·구의원 13명 무더기 탈당
 광주 유일 국민의당 동구청장 결정 못내려
 전남도의원 20명 탈당... 16명 민평당 입당
 박홍률 목포시장·고길호 신안군수 민평당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창당으로 옛 국민의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탈당이 이어지는 등 지역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6·13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 정치권은 더욱 고심에 빠졌다. 당의 색깔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옛 국민의당을 탈당한 정치인들이 민평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행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또 새롭게 선보인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 내 파급력을 예상할 수 없어 민주당도 설 민심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3일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8명과 구의원 13명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호남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가치를 저버리고 바른정당과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했다”며 집단 탈당했다. 이들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 화해무대까지 폄하 하는 등 정체성이 다른 정치세력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은 모두 9명으로 이 중 8명이 이날 탈당에 참여했고, 같은 당 소속 광주 구의원은 모두 23명으로 이 중 13명이 동반 탈당했다.

이들의 탈당이 본격화 하면서 이들의 행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경우 국민의당 소속 9명 중 김옥자(광산3) 의원은 지역구 권은희 국회의원을 따라 미래당에 합류하기로 했고, 다른 시의원들은 탈당 후 각자도생을 선택했다.

이날 이은방(북구6) 의장을 비롯해 김민중(광산4), 박준수(남구3), 유정심(남구2), 조영표(남구1), 이정현(광산1), 문태환(광산구2), 심철의(서구1) 의원 등이 탈당에 합류했다.

이들의 행선지도 제각각이다. 이들 중 이은방·박준수·유정심·조영표 의원은 현재 민평당 광주시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는 등 민평당에 합류할 예정이며, 김민중·심철의·문태환·이정현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 상태에서 추후 정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4명의 시의원 중 상당수는 민주당·복당·입당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무소속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 민평당의 옷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옛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회 원내대표

인 김민중(광산4) 의원은 28일 “통합 반대”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인들 대다수가 뜻을 같이 하지만 이후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코앞이어서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탈당과 시의원들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광주지역 유일한 국민의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성환 동구청장의 고심도 깊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박주선 의원의 바른미래당 합류에 따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날 함께 탈당한 광주지역 기초의원인 김옥수, 남광민, 마광민, 박용화, 양일옥, 오광록, 유관운, 이관식, 이동춘, 이병석 임순애, 최무송, 하주아 구의원들도 조만간 각자의 행선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 정치권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인기 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전남도의원은 총 57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29명, 민주평화당 16명, 국민의당 5명, 자유한국당과 민중연합당 각각 1명, 무소속 5명이다.

국민의당의 핵분열로 지방정기도 다당제로 재편됐다. 국민의당 소속 25명 가운데 안철수·유승민 통합에 반발해 20명이 탈당했다. 이 중 장일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16명이 민평당에 입당했다.

탈당과 중 권욱 부의장과 한택희·전정철·서일웅·이홍식 의원 등 5명은 아직까지 갈길을 정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평당 간판과 무소속 중 실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규 의장과 주연창·조상래·민병홍·박현호 의원은 아직 국민의당에 남아 있다. 하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당적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 민병홍 의원과 조상래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평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임명규 의장과 박현호 의원은 지역민들과 설 연휴 의견을 나누는 뒤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에 몸을 실은 주승용 국회의원과 가까운 주연창 의원의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도의원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박홍률 목포시장과 고길호 신안군수는 일찌감치 민평당에 합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청소년들 격려하는 추미애 대표 (가운데)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소년 지원시설 유스스퀘어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지역은 어디?

광주 1곳·전남 3곳 대상... 한 곳도 안 할 가능성도

광주 서·남·광산구, 전남은 무안·해남·보성·신안·목포 거론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에도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혀 광주·전남지역에 어느 곳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한해 전략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상대당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범용성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했다.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광주에서 1곳, 전남에서 3곳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략공천 선거구는 시도당위원회와 협의해 결정된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물론 광주와 전남에서 반드시 4곳을 전략공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한 곳도 안 할 수도 있다.

전략공천은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해당 정당의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2014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을 전략공천하면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이용섭 당시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도 13일 “자칫 사소한 공천 실수가 전체 선거판을 흔들 수 있어 호남에서 전략공천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선거구도가 변하거나 지역구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략공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당헌·당규에 있는 청년 및 여성에 대한 공천 우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광주 지역 당 일각에선 서구와 광산구를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벌써 여성 전략공천 지역구로 내정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후보로 거론되는 한 여성 정치인이 최근 입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겠지만 비대해진 신도심을 중심으로 독특한 표심이 형성되고 있어 청년·여성 우대하는 전략공천을 완전히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여성 전략공천이 자주 시도됐던 서구도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또 남구의 경우도 광산구와 함께 현역 구청장이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

을 던진 상태에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관측이다.

전남의 경우 우선 현역 시장·군수가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지역과 현역 시장군수가 다른 당의 소속일 경우가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공천을 하면 가장 큰 반발을 현역 단체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정도를 수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수 권한대행체제인 무안·해남·보성군과 단체장이 경쟁 당 소속인 신안군, 목포시 등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 후유증을 오랫동안 겪었거나 잘못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역의 경우, 혼탁 경선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예방 차원에서 개혁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공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과열로 경선이 무산될 상황이 돼도 자연스럽게 전략공천이 시도된다.

하지만, 전력공천을 할만한 마땅한 인재발굴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누가 봐도 지역을 한 차원 발전시킬만한 인재라면 명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호남에서는 경쟁 정당의 후보를 보면서 여러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후보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수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